

# '그림에 담긴 글로 동양화 의미 음미해보라'

## 조선 18세기 전후 유행한 '시의도' 의의 밝혀



그림에 글이 함께하는 '시의도'

유심하 본 일 있는가? 옛 그림을 보면 흔히 그림 안에 글이 적혀 있다. 이런 글에는 기본적으로 언제, 누가 그림을 그렸는 정보가 들어 있다. 또 도연명과 이백 등 동양 고전의 진수인 시구나 명구가 담겨 있다. 때로는 철학적이거나 풍자적인 글귀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전 명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고자 했는지, 그림에 담고자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작가의 서명만 간단하게 적는 서양화와의 결정적인 차이다. 동양화에서 이렇게 그림과 글이 함께 하는 그림을 '시의도(詩意圖)'라 한다. 조선 후기, 18세기를 전후해 짧은 기간 유행한 '시의도'의 특징과 우리 회화사에서 '시의도'가 갖는 의미를 밝힌 책이 나왔다. '시의도'는 중국 남송시대에 시작된 형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전해졌다. 흔히 그림을 그린 뒤 적절한 문구를 찾아 적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림을 먼저 떠올린 뒤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 어울리는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 그림이라는 뜻이다. 특히 그림의 이의 철학적 깊이와 소양이 드러나는 그림이다. 저자는 한국미술정보 개발원 대표이자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 K'를 운영하고 있는 윤철규 대표로, 그는 옛 그림속 고전 명시가 왜 그림에 들어갔는지 파고들었다.

따지고보니 강세황 정선 김홍도 신윤복, 최북, 심사정, 이방운 등 당대의 내로라 할 문인 사대부들이 시의도를 남긴 주인공들이었다. 저자는 "시의도는 일반 사대부들의 지성과 이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허위의식과 은밀한 취미까지도 엿보게 해주며" "동시에 당시 유행한 글 아들이 즐겨 읽은 시를 알려주는 소중한 문화 사료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근대정신이 싹트면서 서민층에 널리 유행한 노랫말까지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시의도다. 글과 더불어 비로소 온전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그림인 만큼 화폭에 담긴 이야기거리가 풍부하다는 것, 최근 우리 옛 그림 이야기에 산수화, 풍속화와 더불어 시의도가 빠지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옛 그림은 이제 고리타분해졌다. 특히 영어보다 어려운 한문이 적힌 시도 적혀 있어 '우리 그림'이지만 먼 그림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산수화 풍속화와 더불어 옛 그림에 합류한 '시의도'를 통해 '우리 고전 명화'를 온전하게 감상하게 해준다. 조선 후기 시의도 340여점이 망라돼 있다. 그림 속 글귀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시

원스런 도판과 쉬운 말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한문학자인 김규선 교수(신문대학교)가 시의도 속 한시를 감수해 해석하고 풀이했다. "강세황은 김홍도가 여러 분야에 두루 뛰어나 옛사람에 견주어도 대항할 자가 없었다. 특히 '신선과 화조에 뛰어나 이미 당대에 이름을 날린 데 이어 후세에도 이름이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선 그림은 김홍도보다 한 세대 앞서 유행해 이미 심사정이 뛰어난 그림을 많이 남긴 터, 심사정과 가깝던 김홍도가 그 명성을 이은 셈입니다. 김홍도의 신선도 솜씨는 국보로 지정된 <군선도(群仙圖)>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홍도 그림 가운데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화조화(花鳥畵)입니다. 김홍도는 화조를 대상으로 한 시의도를 누구보다 많이 그렸습니다. 화조만이 아닙니다. 김홍도는 동물이 등장하는 시를 보면 곧잘 시의도를 그려곤 했습니다. 스승 강세황이 산수로 시의도를 많이 그린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향사군탄(向使君灘)>이 있습니다. 김홍도는 하늘을 나는 새를 많이 그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달 밝은 밤을 배경으로 어스름 물이 귀 눈위를 비람처럼 스쳐 가는 백로가 백미입니다."(p.189~190) 464쪽, 마로네북스, 2만8000원. /뉴스



장진 감독 '꽃의 비밀' 소리문화의전당 공연

'수다와 풍자로 무장한 이 시대의 이야기꾼·이름이 곧 브랜드인 코미디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장진 감독의 <꽃의 비밀>이 오는 9월1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된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 앙상블이 주는 재미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또재기 발달한 상상력으로 출발하여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어느 순간 맥 빠지게 특 튀어나오는 그만의 독특한 이야기 방식을 구사한다. '꽃의 비밀' 역시 '장진식 유머'가 여전히 유효 기능한 브랜드라는 걸 방증한다. 작품의 배경은 이태리 북서부 지방 '빌라페로사'라 하는 작은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포도 농사를 하며 위인을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남자들은 축구에 미쳐있고, 여자들은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작품은 네 명의 아줌마, 부부끼리 전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수 원인니 소피야 '이혼하자'라는 말은 남편이 잘 때만 조심하게 내뱉지만 알고 보면 털털한 주당 자스민, 팔짝 굵은 배달부의 씬을 즐기는 예술학교 연기 전공 출신의 모니카, 무엇이든 고쳐내는 공대 수석 졸업자 일명 맥가이버 지나가 극을 이끌어간다. 이들은 축구에 열광하는 남편들을 모두 축구장으로 보내고 여자들끼리 송년회를 즐긴다. 그러던 중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그녀들은 20만 유로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각자의 남편으로 변장하는 발칙한 작전을 도모한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언뜻 보면 라이선스 연극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진 감독의 창작극이다. 문의 063)270-8000. /정혜은 기자

# 연애·결혼·출산 포기한 '삼포세대' 슬픈 메아리 소리에 실어

## 내달 3일 우진문화 예술극장 공연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 세대를 일컬어 N포세대라고 말한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에 더해 인간관계와 집을 포기한 '오포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청춘의 모습을 '칠포세대'라고 한다. 여기에 '15포세대'까지 등장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건강, 학업, 노후, 이미지, 양심, 종교, 정치, 애국까지 포기한 세대라고 한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일까? 소리꾼 송봉금이 터널 끝이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자화상을 소리극에 실었다. '시대를 노래하다. 삼포가 오는 9월3일 오후 7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80년대 태어나 2016년을 살아가는 20대 후반의 봉금은 변변한 직장없이 시집도 못간 여성이다. 저축은 고사하고 밀린 학자금 대출에 휴대폰 할부금까지 꼬박꼬박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마땅히 돈 들어올 구멍은 없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봉금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며 살아가자 다짐하게 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봉금의 곁에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친구 봉황



이 여의도 증권맨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한다. 마음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봉금은 점점 더 열악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된다. 이 작품의 기획자는 "전주는 이렇다 할 대기업 없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등지고 떠나는 도시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 안에서 꿈은 높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말처럼, 가난하고 배경이 좋지 않은 평범한 젊은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기획의도를 표했다. 극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늘 잔고 부족한 청춘에게 막연한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문의 272-7223. /정혜은 기자

# 전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협의회

## 덕진공원서 일상 속 생활문화 선행

전라북도생활문화예술동호회협의회는 오는 9월 3일 전주덕진공원에서 <2016 전라북도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형형색색 멋과 끼로 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연은 오후 2시 마중긋(길놀이)를 시작으로 오후9시까지 총2부에 걸쳐 펼쳐지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체험과 프리마켓 행사는 오전11~6시 진행된다. '그레이트플랫양상들의 사운드오브뮤직 중 도래미송, 조봉묵의 하늘을 향한 울림 난타, 소리꽃의 춘향가 중 속대머리, 불사탕의 퐁타 라이브, 울디스벗유의 락밴드, 무궁화합창단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등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전라북도생활문화예술동호회 14개 시·군의 2000명 회원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배워온 일상 속 문화예술을 도민들과 향유한다. 이명준 협의회장은 "동호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나이가 들어서도 무언가에 도전하고 참여해 하여 삶에 활력과 운택을 더하는 것이 생활문화동호회의 매력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전북도페스티벌은 14개 시·군 지역에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을 각출해 마련한 총2100만원의 예산비와 (재)생활문화진흥원이 공모한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교류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 돼 지원 받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치러진다. /정혜은 기자

# 남원에서 전국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천년도 훨씬 넘은 통일 신라때 악성 옥보고 선생이 지리산 운상원(운봉)에 들어와 50여년 동안 30여곡의 주옥같은 선율을 지어 후세에 전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도록 천상의 소리를 멈추지 않고 품어내어 거문고는 백가지 악기 중에서도 최고의 악기로 백악지정으로 숭상되고 있다. 관소리보다 더 오랜 세월을 우리민족의 가슴을 울리며, 유유히 흘러 우리의 정신을 풍족하게 했던 거문고 소리가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이때 그 맥을 튼실하게 하고자 악성옥보고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한 거문고 경연대회를 전북 남원시에서 개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이하 한문연)의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선정된 '서울타악 기악상블과 함께 하는 놀자'가 내달 3일 오후 4시 정음사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8월 문화가 있는 날(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행사 주간에 맞춰 마련됐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특별히 200여명의 소외계층을 초청,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타악기악상블'은 지휘자 박광서 교수를 주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1989년에 결성한 우리나라 대표 타악 그룹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http://www.phislab.com/>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8월 31일>

<p><b>▷쥐띠</b> 46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60년생: 협동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 72년생: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4년생: 동료로 인해 고된일 일이 생긴다.</p>	<p><b>▷소띠</b> 49년생: 건강에 적신호가 비치니 섭생에 주의하라. 61년생: 쉬면서 기운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 73년생: 때를 기다려야 하는 운이니 현재에는 내실을 다지고 기다려야 한다. 85년생: 흑백이 분명한 태도가 오히려 구실을 안드니 언행에 주의하라.</p>	<p><b>▷호랑이띠</b> 50년생: 계획이나 중요한 일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때. 74년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옛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p>	<p><b>▷토끼띠</b> 51년생: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63년생: 준비된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맞이해 기쁜 일이 생기는 길운이다. 75년생: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운. 87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p>
<p><b>▷용띠</b> 52년생: 계획을 세워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 좋을 때다. 64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이 있으니 배풀어라. 76년생: 조연 속에 해달이 있다. 88년생: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p>	<p><b>▷뱀띠</b> 53년생: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65년생: 소리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77년생: 뒷사람과 함께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p>	<p><b>▷말띠</b> 54년생: 투기는 삼가고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한 운. 66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은 좋다. 78년생: 원리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운, 편법은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90년생: 사람을 만나는 일이니 함께 도모해야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운이다.</p>	<p><b>▷양띠</b> 55년생: 고집은 금물, 자기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 67년생: 다른 사람과 불화할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 79년생: 건강과 금전운 모두 약하니 무리한 추진은 손실만 키우게 된다.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다.</p>
<p><b>▷원숭이띠</b> 55년생: 미뤄왔던 문서정리에 좋은 때다. 69년생: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이룬다. 80년생: 동성보다 이성과 기운이 잘 통하는 때. 92년생: 둘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p>	<p><b>▷닭띠</b> 57년생: 작은 일을 간파하면 인된다. 69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소화기 및 기관지 계통에 신경써라. 8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하는 운. 93년생: 먼저 배풀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p>	<p><b>▷개띠</b> 48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이루어지는 운이다. 58년생: 자신을 낮추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운이니 겸손함을 잃지 마라.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하라. 82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운이다. 건강에도 주의하라.</p>	<p><b>▷돼지띠</b> 47년생: 처음엔 좋지 않으나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운이니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59년생: 지나친 의욕은 실패를 부른다. 정도를 지켜야 하는 때. 71년생: 질병에 취약한 운이니 건강에 유의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83년생: 일에 막힘이 생기니 욕심은 금물.</p>